

‘삼국유사’ 주제로 국제심포지엄 열린다

문화재청, 8월 31일, 9월 1일 양일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삼국유사〉에 전해지는 다양한 설화는 역사인가 신화인가?

문화재청이 8월 31일과 9월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8시까지 개최하는 삼국유사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삼국유사〉 임신본 발간 500주년을 맞아 이에 대한 역사성과 신화성의 다각적인 해석이 시도된다.

1부 행사인 학술행사에서는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첫 번째로 ‘삼국유사의 의미 체계와 해석의 역동성’ 발표를 통해 삼국유사의 역사적인 부분과 신화적인 부분을 나눠 사회문화 현상 등 다양한 해석 방법을 제시한다.

이도흠 교수는 “삼국유사는 당시 사회를 비추는 반영상과 신화로 표현된 굴절상이 모두 나타난 문화유산”이라며 “문화, 사회, 역사 등을 고려한 다양한 해석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삼국유사, 신화와 역사의 어우러짐과 해석의 열림’을 주제로 첫날인 8월 31일에는 국내외 석학들이 삼국유사의 세계 문화사적 가치를 확인하고, 새로운 역

사적, 기호적 해석을 제안하는 학술행사가 열린다.

학술행사에서는 이어령 前 문화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이도흠 한양대 교수의 ‘삼국유사의 의미 체계와 해석의 역동성’, 기무라 마코토 동경수도대 교수의 ‘삼국유사의 판본 연구에 대하여’,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의 ‘고대 및 중세 한반도인 이들이 본 인도: 가락국기를 중심으로’, 김상현 동국대 교수의 ‘삼국유사 인용 자료의 검토: 고기(古記)를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고운기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허경진 연세대학교 교수, 최재목 영남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삼국유사 인용 자료의 검토: 고기(古記)를 중심으로’를 발표할 예정인 김상현 교수는 “삼국유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 역사서인 고기에 대한 조명을 통해 단군신화 등을 조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31일에는 ‘작품으로 만나는 삼국유



사’를 주제로 김남수 평론가의 진행 하에 윤후영 소설가, 이운택 연출가, 김명화 극작가 등 삼국유사를 통해 예술세계를 일군 작가들과의 대화가 이어진다.

둘째 날 9월 1일은 ‘신화적 상상력의 열림과 변형’을 주제로 동아시아 신화의 학문적 검토와 예술성에 대한 진단이 진행된다.

조현설 서울대 교수 등 4명이 발표를 하며, 이영준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최원오 광주교육대 교수, 이연승

서울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국립극단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삼국유사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창작한 다섯 편의 연극을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국립극단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국제 심포지엄과 연극 공연은 과거와 현재가 소통하고, 인문학과 예술적 상상력이 상호 교류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참여해 그 의미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조의 스승은 무상” 주장 이어져

조계종 교수아사리 정운 스님, 선리연구 12집서 주장

입당구법승들이 문하에 유난히 많이 입문했던 마조 선사(신라 구산선문의 원류로 칭송받는다. 마조 선사의 그 법맥이 신라 출신의 정종종(淨衆宗) 종주였던 무상(無相, 684~762) 선사에게서 이어졌다는 주장이 또 나왔다.

조계종 교수아사리 정운 스님은 최근 선리연구원 〈선문화연구 12집〉에 실린 ‘무상대사와 마조의 사법에 대한 재고 - 현실적 시공간 측면에서 접근’ 논문을 통해 무상대사와 마조 선사 사제기간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운 스님은 “마조 스님이 사천성에서 출가·삭발한 시기와 무상대사가 사천성에서 수행한 시기가 맞물린다”며 “함께 사천성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아 무상과 마조가 만났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개연성을 부여했다.

정운 스님은 “마조 스승은 무상대사의 스승이자 마조의 삭발 스승인 처적 선사를 통해 끈이 이어져 있음에 주목했다.

정운 스님은 “무상대사가 당나라에 갔을 때가 세속 나이로 44세”라며 “무상대사와 마조 스님의 나이 차이가 25세 차이는 만큼 특별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가르침을 주고받는 관계

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운 스님은 이어 “무상대사와 마조 스님이 만났을 가능성은 장송산(長松山)에 전해지는 마 씨(馬)라는 인물의 설화가 마조 스님을 칭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스님이 예로 든 장송산 마 씨는 〈경덕전등록〉에 그 이름이 전해지던 현재도 장송산에는 마조동(馬祖洞)이라는 지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 스님은 이어 “마조와 무상이 처적의 도량인 덕순사나 장송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났을 가능성도 있다”며 “마조 스님이 사천성 여러 지역에서 수행하던 중 처적 스님이 입적하자, 무상을 만나 스승으로 섬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운 스님은 “중국 8~9세기에는 선사들이 많았는데 신라 승려들이 굳이 마조에게 제자들을 찾았던 것은 무상과 마조의 사법이 신라 사회에 널리 알려질 결과로도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스님은 “무상대사에 관련된 기록이 최치원의 〈智證大師寂照塔碑〉에도 전하며 사굴산문 행적(行寂)은 무상대사의 영당에 예를 올린 기록이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정운 스님 논문 중 무상과 마조의 시공간 비교표

년도	무상대사	마조선사	선종사
684년	신라 성덕왕의 셋째아들로 출생		
709년		사천성 시방현 출생	706년 대통 신수 열반
713년	신라 군남사 출가		713년 육조 해능 열반
728년	44세 당나라로 들어감 현종을 만남 서안 선정사에 머무름		
729년		20세, 사천성 시방현 나한사로 출가	
730년 무렵	46세까지 2년간 처적 문하에서 수행	22세 무렵 자주 처적에게서 낙발 유주(현 중경) 원음사에 가서 구족계 수지	
732년 무렵	47~48세 천국산에서 두타행 처적에게 법을 받음 다시 천국산에서 수행	22~24세 사천성 이주 장송산과 호복성 형남 명월산에서 수행	732년 신회가 활대 대운사에서 복종을 비판, 공격함
734년		25세 호남성 남악형산 전법원에서 때달음 20대 후반을 호남성, 강서성 일대에서 수행	734년 당화상인 처적 열반
740년대 초반	740년/56세 사천성 성도 정종사에서 개법	742년 34세 북간성 건양현 석적사에서 개법	
740년대 후반~750년대	정종사, 보리사, 영국사 등 사천성 일대에서 행화를 펼침	홍주(현 남청) 개원사, 의황 석공사, 공주 공공산 보화사, 임천 서리산 등 강서성 일대에서 행화를 펼침	744년 남악 회양 열반 755~763년 안사의 난 774년 보당 무주 열반 780년 규봉 중일 탄생
756년 무렵	72세 무렵, 현종의 권청으로 대자라로 옮겨감 세수 79세로 성도 정종사에서 열반		
762년		세수 80세로 강서성 정안 보봉사에서 열반	790년 석두 최현 열반
788년			

전통사찰 7곳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국가브랜드위, 통도사서 9월 22일 국제학술대회

양산 통도사, 보은 범주사, 공주 마곡사, 해남 대흥사, 순천 선암사, 안동 봉정사, 영주 부석사 등 전통사찰 7곳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이배웅)는 8월 10일 문화재청에서 회의를 열고 2015년까지 전통사찰 7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연구·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가브랜드위원회·문화재청 관계자 외 범주사 등 7곳 사찰 주지 스님들이 참석했다.

첫 행사로는 9월 22일 통도사에서 ‘사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불교사찰과 세계유산’ 기조강연을 비롯해 국내 학자들의 한국불교전통 및 사찰문화, 사찰건축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등과 같은 주제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중국·일본·동남아 불교유산 소개와 함께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만해 스님 묘소, 문화재로 등록된다

문화재청, 독립운동 유공자 묘소 7개소 등록 예고

만해 한용운 스님의 열반 68주년을 맞아 올해 스님의 묘소가 국가 문화재로 등록된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 예고한 묘소 7개소 모두 애국정신을 기릴 수 있는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큰 곳”이라며 문화재 등록 이유를 밝혔다.

한일독립운동 유공자 묘소 문화재 등록은 앞으로 30일 간의 등록 예고 기간 중에 수렴된 이해 관계자와 각계의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문화재로 공식 등록할 예정이다.

묘소(강북구 수유동), 안창호 묘소(강남구 신사동), 김창숙 묘소(강북구 수유동), 신익희 묘소(강북구 수유동) 등 7개소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 예고한 묘소 7개소 모두 애국정신을 기릴 수 있는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큰 곳”이라며 문화재 등록 이유를 밝혔다.

한일독립운동 유공자 묘소 문화재 등록은 앞으로 30일 간의 등록 예고 기간 중에 수렴된 이해 관계자와 각계의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문화재로 공식 등록할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동국대 상반기 ‘불교박사’ 7명 배출

불교 주제 석사는 14명

올 상반기 동국대에서 7명의 새로운 ‘불교박사’가 탄생했다.

동국대 일반대학원은 2011년도 가을 학위 수여 목록을 발표했다. 이중 불교를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은 △김경래, 스리랑카 테라와다의 정통성 확립과정에 대한 비판적 연구 - Vamsa(연대기)와 Atthasalini(수승의주)를 중심으로(불교학과) △윤미경, 구마라집 법신과 연구(불교학과) △권선향, 송대 이학의 체용론에 나타난 불교의 영향(불교학과) △여현 스님, 마조도일에 관한 연구-선교론 중심으로(선학과) △정영희, 초의와 리규(利休)의 선다문화 비교연구(선학과) △정성진, 고려 건국기 석조미술 연구(미술사학과) 등 7편이다.

또 불교를 주제로 한 석사학위 논문은 △김명연(학수), 유마경에 나타난 보살사상연구(불교학과) △안은영(학수), 유사에서 의식전반 연구-‘유식삼십론’ 제18송을 중심으로(불교학과) △강상화(보화),

대승기신론 미오의 세계 연구(불교학과) △임윤경(석도), 보현행원품소에 나타난 보현행원 연구(불교학과) △장성우, 원측유식의 불성론 연구(불교학과) △메기향, 고구려 원류의 ‘화엄경’ 나라(拿來) 고찰-생애와 구법을 중심으로(불교학과) △김주후, 원효의 혼승론 분석-상호작용의 과정과 의미를 중심으로(불교학과) △박만순, 정혜결사의 현대적 고찰(불교학과) △함형은(우문), 용성선사의 ‘수심론’ 연구(선학과) △한승해(우문), ‘위두라 현자 본생담(Vidhurapandita-jataka)’을 통해 본 ‘도기전’의 불교적 이미지 연구(인도철학과) △이재연, 가야산 지역 신라석탑 연구(미술사학과) △신희경, 기림사 대적광전 삼신삼세불회도 연구(미술학과) △이주영, 조선후반기 갈로왕도 연희장면 연구(미술학과) △홍보라, 한국 단청양식의 회화적 변용 연구(미술학과) 등 14편이다.

노덕현 기자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향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끈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햄포일부부 1개 10,000원

■건포, 스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돌리듯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삼베사워타올 (건포마사지)

-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 피부의 더러움과 죽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 원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삼베세안타올

-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정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행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삼베수세미

-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헌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